

소의 건강과 질병

본 강론 코너는 가축 사양가들을 위한 코너로서, 가축사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 편집위원회 —

소를 사육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서 수지가 맞아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소도 생물이므로 사육함에 있어서 축주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때가 가끔 있다.

여기에서는 가축사육가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강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기술하는 바이다.

1. 건강이란

건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위장(胃腸)이 튼튼하고 소화흡수를 잘하여 잘자라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위장이 튼튼하여 사료를 잘 먹고 이를 잘 소화흡수 시키면 몸의 영양이 좋아지는 것이다. 영양이 좋으면 방위반응(防衛反應)이 강하게 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

방위반응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병원체가 몸안에 침입하여 조직을 죽이면 그 주위의 혈액이 많이 모여서 병원체의 독소를 희석하고 중화시킨다. 그 다음 큰세포(조직구)가 나와서 죽은 세포나 세균등을 잡아 먹으므로 병소부위를 소제한다. 그 후에 섬유아세포가 나와서 병변부의 둘레를 둘러싸며, 마지막으로 체내에서는 면역체가 만들어져서 세균

을 죽이거나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체의 방위반응은 개체에 따라 다르다. 같은 병원체를 똑같은 양으로 두마리 소에 넣었을 때 한마리는 거의 질병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치유되나, 다른 한마리는 상당히 심한 병변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다. 즉 병원체가 방위반응보다 강하면 생체가 저서 병변은 점점 확대되어 몸의 각 부위로 병변이 옮겨가거나 또는 병원체의 독소가 몸전체에 돌아다니면서 그로인하여 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병원체가 침입하였을 때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생체의 방위반응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방위반응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체의 방위반응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방위반응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영양이다.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할수록 앞에서 설명한 조직구나 면역체를 많이 만들어 내어 병원체에 대한 방위반응이 강하게 되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영양이 충실하여 체력이 활달하고 저항력이 있으면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질병의 예방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위생에 노력하는 것이 수지맞는 축산임은 틀림없다.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소가 필요로 하는 즉 소의 체기구(體機構)가 요구하는 좋은 풀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 영양이 좋도록 하면 자연히 병원체에 대한 방위능력도 강하게 될 것이다.

소는 위를 4개 갖고 있으며,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한다. 소는 원래 풀만 먹고 살아온 동물이다. 이를 사람이 순화시켜 키워서 고기와 젖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는 풀만 충분히 급여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풀이 부족하면 위장장애를 일으켜 많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소인이 된다. 오늘날 소의 질병 가운데 소화기장애, 번식장애, 유질불량 등 많은 질환은 오랫동안 풀을 적게 급여하므로써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다. 풀이 부족하니 그 대신 소의 위장에 맞지 않는 농사료(배합사료)를 보충하여 주게 된다. 그리하여 농사료 급여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화기등에 이상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풀을 충분히 급여하지 않는 사육관리 불합리로 일어나는 질병은 약으로 간단히 치료되지 않는 것이 많다. 약으로서 일시 치료되었다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와같은 질병의 예방은 할 수 없다.

소가 요구하는 사육관리를 하지 않으면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치료하는데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수지를 맞출 수 없다. 그러므로 풀사료를 충분히 계획적으로 급여하는 것이 질병을 막고 경영을 잘하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3. 질병의 조기발견

소도 사람과 같이 심기(心氣)가 좋지 않거나,

오한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또는 웬지 모르게 몸 상태가 경쾌하지 못할때가 있다. 그와같은 때에 소는 그 상태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사육가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기는 일이 많다. 소에 대한 이상상태는 축주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축주가 일찍 관찰하지 못하고 놓쳐 버리면 이상증상이 상당히 심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다. 일찍 발견하였으면 약간의 치료로도 회복시킬 수 있을것을, 증상이 악화되므로써 치료하는데 상당한 지출을 하여야 하고 또는 불행하게도 소를 도태하여야 할 때도 있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축사육가들은 급성전염성 질병을 제외하고는 수정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유질·유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 직접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에 대하여는 신경을 많이 쓰고있다. 그러나 먹이를 먹는 것이 조금 나쁘다던가, 위장의 운동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번식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유질이 나쁘게 되는 등등의 여러가지 이상상태는 실제로 상당히 장기간 몸 전체의 상태가 나쁜 결과로써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기 까지에는 여러가지 증상을 표현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표현이 명료하지 아니하거나 가축사육가가 관찰하지 못함으로써 종국적으로서 문제가 되었을때에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 사육가는 소의 생리를 잘 알고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여 몸의 변화상태를 빨리 발견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끔 「그 사람 소 키우는 데에는 도가 텃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사람은 날때부터 소를 키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기보다는 오랜 경험위에 공부를 많이 하여 소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서 소의 몸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적절한 처리를 함과 동시에 항상 소의 생리에 합당한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소와 접촉하고 있는 사육

가는 소에 대한 지식을 몸에 익혀서 소의 몸에 일어나는 약간의 변화도 빨리 발견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소를 건강하게 키우고, 질병을 예방하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인 사육관리는 건강한 몸을 형성한다」라는 것이다.

소가 요구하는 풀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지 아니하고 또 충분한 운동을 시키지 아니하므로

즉 소의 체기구의 요구에 합당한 사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없으므로 세포의 물질대사가 충분히 강하게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방위반응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소사육가들은 위와 같은 소 사육에 있어서 몸에 꼭 익혀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